

# ‘반미 연대’ 중-러시아 북극 개발 다각 협력

### 북극해 천연가스 수송노선 ‘북극 실크로드’ 조성 속도 석유·가스 개발도 적극 모색

미국의 무역 공세와 제재에 맞서 연대를 강화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극 지역 개발에서도 다각적 협력에 나서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2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처음으로 발표한 북극 정책 백서에서 자국을 ‘북극권 국가’로 규정하고, 북극해를 통해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북극 실크로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극 실크로드 개념은 지난 2015년 중국과 러시아 정부 대표가 회동했을 때 처음 제기된 것으로, 양국은 러시아의 북극 해안을 따라 경쟁력 있는 북극해 수송노선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두 나라의 북극권 협력은 러시아 서시베리아의 야말 반도에서 연 1650만톤의 액화 천연가스(LNG)를 생산, 아시아와 유럽으로 수출하는 야말 프로젝트에서 본격화했다.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석유천연가스(CNPC)는 지난 2013년 러시아 기업 노바텍과 계약을 맺고 야말 프로젝트의 지분 20%를 취득, 이곳에서 생산되는 LNG 중 매년 300만톤을 중국으로 수입하기로 했다. 양국의 협력은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

림반도 합병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가 단행되면서 더욱 깊이 있는 단계로 발전했다.

액손모빌 등 서방 기업이 야말 프로젝트에서 발을 빼자 2015년 노바텍은 추가로 이 프로젝트 지분 9.9%를 13억 달러에 중국 실크로드 펀드에 팔았고, 운영 자금도 중국 측에서 조달했다.

중국수출입은행, 중국개발은행 등도 지원에 나선 결과 야말 프로젝트에 필요한 총 자금의 60%를 중국 측이 공급하게 됐다.

양국의 협력 결과 올해 여름 야말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를 실은 러시아 선박 2척이 북극해를 통과해 중국 장쑤성 루동까지 이를 운송하는 데 성공했다.

양국이 북극해를 본격적으로 활용한 첫 사례인 이 항해에 걸린 기간은 19일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던 기존 노선이 35일 걸린 것에 비해 수송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두 나라는 나아가 석유, 가스, 광물 등 북극권에 매장된 각종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데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규모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SCMP는 “지금껏 중국은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러시아와의 공동 사업에 신중한 자세를 취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무역전쟁 개시로 이제 상황은 변했다”며 양국의 북극권 개발 협력이 한층 확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공개한 새 집단체조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사이트 '조선관광'에 지난 7일 올린 새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의 공연 모습. /연합뉴스

## 북한 단체관광 외화벌이 재가동

### 중국인 관광 입국 재개

정권 수립 70주년(9·9절) 행사를 마친 북한이 오는 16일부터 중국인들의 단체관광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외화벌이에 나섰다.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이 시진핑 국가 주석의 특별대표로 방북한 이후 나온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들의 방북이 북한의 큰 소득원이라는 점에서 양국 협력 강화가 주목된다.

12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의 북한 전문여행사인 INDPK를 포함한 업체들은 오는 15일부터 북한 단체관광 상품 예약을 시작해 16일부터 관광객을 보낼 예정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잠정 중단됐던 북한 단체관광이 재개된다”면서 “16일부터 북한 단체관광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중국의 북한 전문여행사들에 호텔 보수 등 국가적인 조치 때문에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5일까지

단체 여행객을 받지 않겠다고 전적으로 통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시진핑 주석의 방북 추진 때문이라는 말이 나돌았으나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해 9·9절에는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며 북중 우호를 다진 바 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중국이 리잔수 상무위원장의 방북이 북한의 큰 소득원이라는 점에서 양국 협력 강화가 주목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의 ‘희석 지대’인 관광 분야를 통해 대대적인 북한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관광객이 매일 2천여 명에 달해 북한의 외화 기근 해소에 큰 도움을 줬다는 분석이 많았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북한 관광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으로 보여 ‘북한 관광 특수’가 예상된다. /연합뉴스

## “괴물 허리케인 온다”

### 5등급 ‘플로렌스’ 접근 美동부 170만명 대피령

대서양에서 발생한 초강력 허리케인 ‘플로렌스’의 미국 남동부 해안 상륙이 임박했다. 이에 따라 노스·사우스 캐롤라이나, 버지니아 3개주를 중심으로 약 170만 명에 대피령이 내려졌다.

11일(현지시간) 오후 5시 현재 플로렌스는 버뮤다 제도의 남쪽 해상에 있으며 시속 17마일(27km)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

최대 풍속은 시속 140마일(225km)로, 4등급 허리케인으로 세력을 강화했다. 풍속이 시속 111마일(179km) 이상이면 카테고리 3등급이 되는데 카테고리 3~5등급을 메이저급 허리케인으로 분류한다.

특히 플로렌스는 340마일(547km)에 걸쳐 광범위하게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게다가 해상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로 이동하면서 위력을 키우고 있다고 NPR방송은 분석했다.

현재 예상 진로는 14일 오전께 동부해안에 상륙하고 최고등급인 5등급으로 위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5등급은 풍속



11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고속도로로 순찰대 차량이 초강력 허리케인 ‘플로렌스’의 상륙에 대비해 안전 지역으로 탈출하려는 주민들의 차량 행렬을 안내하고 있다. 허리케인 ‘플로렌스’의 미국 남동부 해안 상륙이 임박한 가운데 노스·사우스 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 3개 주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약 150만 명의 주민에 대해 강제 대피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이 시속 157마일(253km) 이상이다.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 제프리 비어드 구조팀장은 “플로렌스는 매우 위험한 폭풍”이라며 “캐롤라이나 지역으로선 수십 년만의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라고 우려했다.

FEMA 측은 전력망을 비롯한 기반시설

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인명 피해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주 지사는 “이번 폭풍은 괴물”이라면서 “극도로 위험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역사에 남을만한 허리케인”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중국 관영매체인 중국증권일보가 인

그는 “이번 폭풍이 물고을 수도 있는 파도와 바람은 이전에 봤던 어떤 것보다도 전혀 다르다”면서 “이전에 여러분이 폭풍을 잘 넘긴 적이 있다고 해도 이번 것은 다르다. 괴물을 견뎌내는 데 목숨을 걸지 말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 판빙빙 사법처리 임박? ... 中인민일보 연예인 고수입 비판 칼럼

중국 인민일보가 ‘소수 연예인’의 천문학적 고수입을 비판하는 칼럼을 실었다.

인민일보는 지난 11일 문예평론면인 23면에 평론가 리성원이 쓴 ‘지나치게 높은 출연료에 대한 생각’이라는 제목의 기명 칼럼을 게재했다.

리 평론가는 “명백히 정상 범위를 넘어 천문학적인 보수를 받는 연기자는 필경 소

수라며 “법률과 정책의 틀 속에서 시장 규율을 존중함으로써 정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정식 지면을 통해 연예인 고수입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는 칼럼을 실은 것이 판빙빙에 대한 당국의 엄정 처벌 방침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에서 운영되는 중국어 뉴스 사이트인 뒤웨이에는 12일 “칼럼에서 언급한 ‘소수 연예인’은 모습이 사라진 판빙빙”이라며 “중국 공산당 기관지가 판빙빙에 관한 글을 실은 것은 판빙빙에게 확실히 ‘큰 일’이 닳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중국 관영매체인 중국증권일보가 인

터넷 홈페이지에 판빙빙이 곧 사법처리될 것이라는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었다가 삭제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중화권에서는 판빙빙이 곧 탈세 등 혐의로 사법처리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판빙빙의 탈세 의혹은 지난 7월 전 중국 중앙(CC)TV 진행자 추이유위안의 인터넷 폭로로 불거졌다.

이후 판빙빙이 공개 석상에서 사라지면서 출국금지, 연금설, 망명설 등 의혹이 난무한 상태다. /연합뉴스

## ‘플라스틱 먹는 곰팡이’ 연구·개발 추진

### 영국 ‘큐 왕립식물원’ 학술회의

지구촌의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인 플라스틱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먹는 곰팡이’ 연구와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큐 왕립식물원’은 이번 주 각국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학술회의를 열어 이런 곰팡이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연구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파키스탄의 한 쓰레기 더미에서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지난해 과학저널 ‘환경

오염’에 실렸다. 곰팡이의 효소가 플라스틱의 주성분인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분해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곰팡이를 개발, 상용화하면 플라스틱 분해에 수백 년 걸리는 시간이 몇 주일로 크게 단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큐 왕립식물원의 일리아 리치 박사는 “곰팡이가 효소를 이용해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플라스틱을 먹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확인한 곰팡이 종류는 전체의 5%에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에만 2000종의 곰팡이가 새로 발견됐다. /연합뉴스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 38평, 사무실 전용
- ✓ 20층중 3층,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
- ✓ 시세 - 1억 1000만원
- ✓ 급매 - 8400만원

## 비금도 옆에 있는 단독섬 "팻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 3번지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 무인도
- 목포에서 50분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있음
- 교환가능(현금 3억+기타부동산)
- 매매 14억(대출3억 포함)

문의. 010-6834-7400

문의.010-3605-5000